



4



부모와 자녀는 도나 해레웨이가 이야기한 실뜨기string figures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인 것이다.

- 1 비건요리콘테스트
숲나플레10년학교
- 2 다큐멘터리 상영회
『2021 문화도시지원사업
‘강릉오방’(보라, 토요 원대로)』
- 3 아이들과 함께 하는
비건 식탁
- 4 비건요리콘테스트작품
숲나플레10년학교

환경과 동물권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한 아이들에 비해 우리 어른들은 너무 미약했고 압살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여성 영상 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큐멘터리 촬영과 편집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활동은 자연스럽게 제작의 길로 이어졌다.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고민하다가 비건과 페미니즘을 연결하기로 했고,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을 위해 우리 가족의 비건 생활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이중적인 비건 생활이 담긴 1차 편집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감상했다. 막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과 함께 방으로 휩 들어가 버렸고, 두 딸은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친구들 중에는 혼자만 비건을 해서 가족들과 부딪히거나, 집에 있는 주말 동안은 비건을 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도 우리 가족은 비건을 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함께 비건을 해서 참 좋았다고 그런데 자신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같이 비건을 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자신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잡식을 할 수 있냐고 했다. 아이들의 배신감은 의외로 컸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편안하고 익숙한 삶, ‘잡식의 맛’을 포기하지 못하고 꿈수나 부리고 있었다니...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깊이 반성했고, 우리는 냉장고를 다시 정리했다. 비건을 둘러싼 우리 가족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는 나의 첫 다큐멘터리 『비커밍 비건』이 되었다. 심지어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와 배급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다. 얼마 전, 아이들은 향호해변에서 플로깅을 했다. SNS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강릉해변에서 플로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 뒤를 따랐다. ‘나’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로 아이들의 시선이 확장된 모양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는 도나 해레웨이가 이야기한 실뜨기string figures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인 것이다.